

휴비츠, 평촌 ‘스마트스퀘어’로 신사옥 이전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비츠 (대표이사 김현수)가 지난 3월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0번지외 2필지)에 마련한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 했다.



휴비츠 신사옥은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연면적이 3만3047.26㎡다. 규모로는 스마트스퀘어 단지 내에서 LG유플러스, 프로텍 다음 세 번째로 크다.

휴비츠 관계자는 “현재 사옥은 3개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R&D센터와 생산라인이 떨어져 있는데 신사옥은 한 건물에 모이게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 시설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사옥의 3~4층에는 생산라인 협력업체 3개사가 입주하며, 5~7층 3개층은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층은 앞으로 생산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확보해놓은 시설공간이다.

외관 디자인도 독특하다. 전면 유리 건물인데 프리즘 형상을 적용했다. 휴비츠 관계자는 “광학회사다보니 회사의 특징을 살려 로고색인

하늘색의 프리즘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에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선다. 스크린골프장, 플레이스테이션 VR 등 게임기와 노래방이 설치된 휴게실, 휘트니스센터, 구내식당 등이다. 물론 직원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공간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휴비츠의 현 임직원 수는 150명인데 주차공간은 250대로 넉넉하다. 휴비츠 관계자는 “스마트스퀘어 단지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근 업체에 주차공간을 임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촌 스마트스퀘어는 제2의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목표로 안양시 주도 하에 조성된 IT R&D(연구개발) 콤플렉스다. 현재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의료영상기기전문 뷰웍스, 디스플레이장비기업 동아엘텍, 방송수신기기(셋톱박스)업체 아리온 등이 입주해 있다.